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0 주차 (6:37~6:71)**

**(2015년 4월 5일 - 2015년 4월 11일)**

**(제3권 11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4 월 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병복음의 의미 (주일)

### 오늘의 본문 (요6:37~46)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원문해석하기

-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πάν ὃ δίδωσίν μοι ὁ πατήρ πρὸς ἐμὲ ἔξει,  
그리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밖으로 내어 쫓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τὸν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ἐκβάλω ἔξω.)
- (38절)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ὅτι καταβέβηκα ἀπὸ τοῦ οὐρανοῦ οὐχ ἵνα ποιῶ τὸ θέλημα τὸ ἐμὸν)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9절) 이것이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δέ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그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οκέν μοι μὴ ἀπολέσω ἔξ αὐτοῦ.)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ἀλλὰ ἀναστήσω αὐτὸ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γὰρ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ἵνα πᾶς ὁ θεωρῶν τὸν υἱὸ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καὶ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γὼ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Ἐγόγγυ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그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ὅτι εἶπεν·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ὁ καταβά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42절) 그들이 말했습니다(καὶ ἔλεγον·)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느냐?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Ἰησοῦς ὁ υἱὸς Ἰωσήφ, οὗ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어떻게 그가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가?  
 (πῶς νῦν λέγει ὅτι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έβηκα;)
-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서로서로 투덜대지 마십시오(μὴ γογγύζετε μετ’ ἀλλήλων.)
- (44절)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λθεῖν πρὸς με)  
 만약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는다면(εἰ μὴ ὁ πατὴρ ὁ πέμψας με ἐλκύσῃ αὐτόν,)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καὶ γὰρ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5절) 이것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것입니다(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οῖς προφήταις·)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καὶ ἔσονται πάντες διδασκῆται θεοῦ·)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나옵니다  
 (πᾶς ὁ ἀκούσας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μαθὼν ἔρχεται πρὸς ἐμέ.)
- (46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χ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εἶδον· αἱ εἰ μὴ ὁ ὢν παρὰ τοῦ θεοῦ,)  
 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οὗτος εἶδεν τὸν πατέρα.)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8 절을 읽으십시오. 38 절은 명백한 이유를 표시하는 헬라이어 접속사 ‘호티’(ὅτι)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의 뜻을 펼쳐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성취되는 것일까요?

39-40 절을 읽으십시오. 이 두 개의 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문장 구조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십시오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A: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τοῦτο δὲ ἐστὶ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B: 그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οκέν μοι μὴ ἀπολέσω ἐξ αὐτοῦ,)  
 C: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ἀλλὰ ἀναστήσω αὐτὸ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A: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τοῦτο γάρ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B: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ἵνα πᾶς ὁ θεωρῶν τὸν υἱὸ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C: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καὶ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γὼ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앞에서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구속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관해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에게 있어 성경은 단지 학문의 대상일 뿐이며 그런 태도는 학자로서 학문을 대하는 올

바른 자세이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학문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39 절)를 “아버지”(40 절)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다른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자신을 통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자신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아버지)을 위해, 하나님(아들)을 통해, 하나님(성령)의 인도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39 절)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보고 믿는 자들”(40 절)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 “나를 보고 믿는 자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예외없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sup>3</sup>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sup>4</sup>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sup>5</sup>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sup>6</sup>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sup>7</sup>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sup>8</sup>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sup>9</sup>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sup>10</sup>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sup>11</sup>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sup>12</sup>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sup>13</sup>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sup>14</sup>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3-14).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4 절),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5 절, 11 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7 절),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4 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5 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11 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8,9 절), 우리를 인치셨습니다(13 절).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에 인간이 끼어들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부활로 완성됩니다. 이 부활은 영적 깨달음으로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몸의 부활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하셔야 할 사역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온 복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의 주권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6:37~46)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원문해석하기

-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πάν ὃ δίδωσίν μοι ὁ πατήρ πρὸς ἐμὲ ἔξει,  
그리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밖으로 내어 쫓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τὸν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ἐκβάλω ἔξω.)
- (38절)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ὅτι καταβέβηκα ἀπὸ τοῦ οὐρανοῦ οὐχ ἵνα ποιῶ τὸ θέλημα τὸ ἐμὸν)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δέ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그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οκέν μοι μὴ ἀπολέσω ἔξ αὐτοῦ.)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ἀλλὰ ἀναστήσω αὐτὸ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γάρ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ἵνα πᾶς ὁ θεωρῶν τὸν υἱὸ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καὶ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γὼ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Ἐγόγγυ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그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ὅτι εἶπεν·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ὁ καταβὰ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42절) 그들이 말했습니다(καὶ ἔλεγον·)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느냐?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Ἰησοῦς ὁ υἱὸς Ἰωσήφ, οὗ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어떻게 그가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가?  
 (πῶς νῦν λέγει ὅτι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έβηκα.)
-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서로서로 투덜대지 마십시오(μὴ γογγύζετε μετ’ ἀλλήλων.)
- (44절)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πρός με)  
 만약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는다면(εἰ μὴ ὁ πατήρ ὁ πέμψας με ἐλκύσῃ αὐτόν·)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καὶ γὰρ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ν τῇ ἑσχάτῃ ἡμέρᾳ.)
- (45절) 이것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것입니다(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οῖς προφήταις·)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καὶ ἔσονται πάντες διδασκῆται θεοῦ·)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옵니다  
 (πᾶς ὁ ἀκούσας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μαθὼν ἔρχεται πρός ἐμέ.)
- (46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χ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εἶδον· ἀλλ’ ὅτι ἐκ τῆς οὐρανοῦ καὶ ἐκ τῆς γῆς οὐδεὶς εἶδεν τὸν θεόν·)  
 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οὗτος εἶδεν τὸν πατέρα.)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1~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의미를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덜댔습니다’라고 번역된 ‘에그옹구존’(Ἐγόγγυζον)이란 단어는 불만이 많아 입으로 계속 궁시령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놓고 예수님께 따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불만을 수군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궁시령댔을까요? 그들이 수군거린 말에서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 너무나도 많이 공부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 온 빵”이고 “생명의 빵”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알아왔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지적에서 보아왔던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실은 받아들여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당신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혹시 방해는 되기 있지는 않았는지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당신의 구주가 되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늘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의미를 알았다더라면 이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로 배척하는 걸림돌이 되었으니 정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직접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습니다. 그는 로마서 9장 전체를 할애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을 적고 있습니다. 그의 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셨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적은 일부만을 인용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24절입니다.

“4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롬9:14-24).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을까요? 로마서에 따르면 공홀이 여겨야 할 자,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이 있고 그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도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며, 그를 강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궁시렁대는 유대인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100% 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시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오히려 놀리거나 비판하지는 않는지요? 당신은 이러한 현실이 이해가 되나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 또는 당신 주위의 누구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나요? 그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6:37~46)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원문해석하기

-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πάν ὃ δίδωσίν μοι ὁ πατήρ πρὸς ἐμὲ ἔξει,  
그리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밖으로 내어 쫓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τὸν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ἐκβάλω ἔξω.)
- (38절)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ὅτι καταβέβηκα ἀπὸ τοῦ οὐρανοῦ οὐχ ἵνα ποιῶ τὸ θέλημα τὸ ἐμὸν)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9절) 이것이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δέ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그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οκέν μοι μὴ ἀπολέσω ἔξ αὐτοῦ.)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ἀλλὰ ἀναστήσω αὐτὸ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γάρ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ἵνα πᾶς ὁ θεωρῶν τὸν υἱὸ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καὶ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γὼ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Ἐγόγγυ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그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ὅτι εἶπεν·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ὁ καταβὰ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42절) 그들이 말했습니다(καὶ ἔλεγον·)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느냐?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Ἰησοῦς ὁ υἱὸς Ἰωσήφ, οὗ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어떻게 그가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가?  
 (πῶς νῦν λέγει ὅτι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έβηκα.)
-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서로서로 투덜대지 마십시오(μὴ γογγύζετε μετ’ ἀλλήλων.)
- (44절)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λθεῖν πρὸς με)  
 만약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는다면(εἰ μὴ ὁ πατήρ ὁ πέμψας με ἐλκύσῃ αὐτόν·)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καὶ γὰρ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5절) 이것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것입니다(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οῖς προφήταις·)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καὶ ἔσονται πάντες διδασκῆται θεοῦ·)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나옵니다  
 (πᾶς ὁ ἀκούσας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μαθὼν ἔρχεται πρὸς ἐμέ.)
- (46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χ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εἶδρακεν τις εἰ μὴ ὁ ὢν παρὰ τοῦ θεοῦ.)  
 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οὗτος εἶδ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3-44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궁시령대면서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서로 투덜대지 마십시오. 만약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께 보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4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경(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sup>36</sup>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sup>37</sup>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sup>38</sup>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sup>39</sup>너

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sup>40</sup>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5:36-40).

요한복음 5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면 6장은 갈릴리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구약성경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그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의 삶과 그들에게 준 율법과 교훈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의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은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적인 특징과 저자를 중심으로 나눈 것일 뿐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구약성경은 율법적 기능과 예언적 기능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은 인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이며, 예언은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격려하며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갔다면 예언은 그 멸망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언)의 기능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예외없이 하나님의 법에 의한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여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에게 구원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으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 사실이 비로소 인정되면 다음으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끝까지 지켜내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자신들의 죄를 씻는 도구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율법의 인도함이 없는 반쪽 짜리 복음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율법을 통한 치열한 자기 성찰없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죄로 인한 고통 따위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회개도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가려는 치열한 자기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오는 정도의 의미로 죄를 인식하다 보니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죄의 문제는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가 튼튼한 복음의 토양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책망없는 용서를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 율법과 선지라는 성경의 기능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sup>6</sup>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sup>6</sup>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sup>7</sup>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sup>8</sup>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sup>9</sup>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sup>10</sup>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sup>11</sup>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sup>12</sup>손에 킵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5-12).

그가 선포하기를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45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모두 나에게 나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의미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책망으로 인해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나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늘로서 내려 온 산 떡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6:47~59)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 원문번역하기

-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 (48절)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Εγὼ εἶ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 (49절) 당신들의 아버지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ὑμῶν ἔφαγον ἐν τῇ ἐρήμῳ τὸ μάννα)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καὶ ἀπέθανον.)
- (50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그 빵입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ἄρτος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αίνων),  
그로부터 나온 어떤 이든지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τις ἐξ αὐτοῦ φάγη καὶ μὴ ἀποθάνῃ.)
-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빵입니다 (ἐγὼ εἶμι ὁ ἄρτος ὁ ζῶν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만약 누구든지 그 빵으로부터 먹으면 (εἰάν τις φάγη ἐκ τούτου τοῦ ἄρτου)  
그는 영원에 이르도록 살것 입니다 (ζήσκ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살, 이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καὶ ὁ ἄρτος δὲ ὃν ἐγὼ δώσω ἢ σὰρξ μου ἐστὶν ὑπὲρ τῆς τοῦ κόσμου ζωῆς.)

- (52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 다툼이 났습니다 (Εμάχοντο οὖ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οἱ Ἰουδαῖοι)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ντες)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도록 줄 수 있는가?  
 (πῶς δύναται οὗτος ἡμῖν δοῦναι τὴν σάρκα [αὐτοῦ] φαγεῖν;)
- (5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인자의 육신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ἐὰν μὴ φάγητε τὴν σάρκα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καὶ πῖντε αὐτοῦ τὸ αἷμα,)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ετε ζωὴν ἐν ἑαυτοῖς.)
- (54절) 나의 육신을 먹고(씹고) 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ὁ τρώγων μου τὴν σάρκα καὶ πίνων μου τὸ αἷμα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κἀγὼ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55절) 왜냐하면 나의 육신은 진리의 양식이고 나의 피는 진리의 음료입니다  
 (ἡ γὰρ σὰρξ μου ἀληθὴς ἐστὶν βρῶσις, καὶ τὸ αἷμά μου ἀληθὴς ἐστὶν πόσις.)
- (56절) 나의 육신을 먹고(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합니다  
 (ὁ τρώγων μου τὴν σάρκα καὶ πίνων μου τὸ αἷμα ἐν ἐμοὶ μένει κἀγὼ ἐν αὐτῷ.)
-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καθὼς ἀπέστειλέν με ὁ ζῶν πατήρ)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κἀγὼ ζῶ διὰ τὸν πατέρα,)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καὶ ὁ τρώγων με καὶ ἐκεῖνος ζήσει δι' ἐμέ.)
-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 빵입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ἄρτος ὁ ἐξ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οὐ καθὼς ἔφαγον οἱ πατέρες καὶ ἀπέθανον·)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ὁ τρώγων τοῦτον τὸν ἄρτον ζήσ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9절) 이것은 그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Ταῦτα εἶπεν ἐν συναγωγῇ διδάσκων ἐν Καισαρναούμ.)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남기없이 그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더해 그들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 그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는 영생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8~5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네 절에서 생명의 빵이 되신 자신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48 절은 아주 단순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Ε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배경 설명없이 선언만 등장하면 아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선언을 위해 전날부터 계속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먹을 것이 주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이튿날 만난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결국 생명

의 빵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먹게 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시고 그 중 한 사람도 예외없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먹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48 절의 선언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4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실이 만나 이야기는 이 대화 중간에 유대인들이 먼저 꺼냈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아버지들(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심으로 그만 나가 비록 광야 생활동안 그들의 생존 수단이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영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음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이 직전에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부터 떡을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각종 이적을 체험하고 종교 활동도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예수님도 산상 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 장 21 절~23 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개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22 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에 의해 쫓겨날 사람들이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험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로부터 안전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보장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로부터 나온 어떤 이든지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그 빵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것은’(οὗτός)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나는 하늘

로부터 내려 온 빵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무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그로부터 나온 어떤 사람이든지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티스 에크 아후토우’(τις ἐκ αὐτοῦ)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로부터 나온 어떤 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온 어떤 이’인데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 (그로부터 나온)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번역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과 연관지어 해석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등으로 유추할 수 있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그사람들이 자신을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5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빵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빵으로부터 먹으면, 그는 영원에 이르도록 살 것 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살, 이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를 온전히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6:47~59)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 원문번역하기

-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 (48절)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 (49절) 당신들의 아버지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ὑμῶν ἔφαγον ἐν τῇ ἐρήμῳ τὸ μάννα)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καὶ ἀπέθανον.)
- (50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그 빵입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ἄρτος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αίνων),  
그로부터 나온 어떤 이든지 먹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τις ἐξ αὐτοῦ φάγη καὶ μὴ ἀποθάνῃ.)
-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빵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ὁ ζῶν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만약 누구든지 그 빵으로부터 먹으면 (εἰάν τις φάγη ἐκ τούτου τοῦ ἄρτου)  
그는 영원히 이르도록 살 것 입니다 (ζήσ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살, 이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καὶ ὁ ἄρτος δὲ ὃν ἐγὼ δώσω ἢ σὰρξ μου ἐστὶν ὑπὲρ τῆς τοῦ κόσμου ζωῆς.)

- (52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 다툼이 났습니다 (Εμάχοντο οὖ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οἱ Ἰουδαῖοι)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ντες)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도록 줄 수 있는가?  
 (πῶς δύναται οὗτος ἡμῖν δοῦναι τὴν σάρκα [αὐτοῦ] φαγεῖν;)
- (5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인자의 육신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ἐὰν μὴ φάγητε τὴν σάρκα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καὶ πῖντε αὐτοῦ τὸ αἷμα,)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ετε ζωὴν ἐν ἑαυτοῖς,)
- (54절) 나의 육신을 먹고(씹고) 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ὁ τρώγων μου τὴν σάρκα καὶ πίνων μου τὸ αἷμα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καθὼ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55절) 왜냐하면 나의 육신은 진리의 양식이고 나의 피는 진리의 음료입니다  
 (ἡ γὰρ σὰρξ μου ἀληθὴς ἐστὶν βρῶσις, καὶ τὸ αἷμά μου ἀληθὴς ἐστὶν πόσις,)
- (56절) 나의 육신을 먹고(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합니다  
 (ὁ τρώγων μου τὴν σάρκα καὶ πίνων μου τὸ αἷμα ἐν ἐμοὶ μένει καθὼ ἐν αὐτῷ,)
-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καθὼς ἀπέστειλέν με ὁ ζῶν πατήρ)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καθὼ ζῶ διὰ τὸν πατέρα,)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καὶ ὁ τρώγων με καὶ ἐκεῖνος ζήσει δι' ἐμέ,)
-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 빵입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ἄρτος ὁ ἐξ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οὐ καθὼς ἔφαγον οἱ πατέρες καὶ ἀπέθανον·)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ὁ τρώγων τοῦτον τὸν ἄρτον ζήσ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9절) 이것은 그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Ταῦτα εἶπεν ἐν συναγωγῇ διδάσκων ἐν Καισαρναούμ.)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빵이며 누구든지 그 생명의 빵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52 절 말씀에는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에마촌토(Εμάχοντο)’는 동사 ‘마초마이’(μάχομαι)의 Aorist 형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가벼운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정도의 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도록 줄 수 있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극도로 흥분한 이유는 그만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질문 속에 그 생각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뜻은 바로 “그의 살을 먹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 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이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요 3:4).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 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유대인들의 태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쟁을 벌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수사적 질문을 통해 무슨 답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요리가 되어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지요.

53-56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거의 식인종 수준의 설명으로 들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육신을 씹어 먹고’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명 과정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5 절에 나오는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료’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과 피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 장 1 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flesh)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는 빛, 진리, 생명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빛, 진리, 생명이 로고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지요.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로고스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 체험을 통해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수준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종교관에 의존하여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57-5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따라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일종의 ‘생명의 연결 고리’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의 목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이 믿는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연결 고리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생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나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6:60~71)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나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 원문해석하기

- (60절) 그런데 그의 제자들 중 [이야기를] 들은 많은 수가 말했습니다  
(Πολλοὶ οὖν ἀκούσαντε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εἶπαν·  
그의 말씀은 어렵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을까?  
(σκληρὸς ἐστὶ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τίς δύναται αὐτοῦ ἀκούειν;)
- (61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이에 [그의 말에] 대하여 투덜댄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아셨을 때  
(εἰδὼς δὲ ὁ Ἰησοῦς ἐν ἑαυτῷ ὅτι γογγύουσιν περὶ τοῦτου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것[나의 말]이 너희를 걸어 넘어뜨리느냐? (τοῦτο ὑμᾶς σκανδαλίζει;)
- (62절) 그런데 만약 전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인자를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ἐὰν οὖν θεωρήτ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ἀναβαίνοντα ὅπου ἦν τὸ πρότερον;)
- (63절) 성령이 살게 하는 것[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τὸ πνεῦμά ἐστιν τὸ ζῶοποιῶν·)  
육신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ἡ σὰρξ οὐκ ὠφελεῖ οὐδέν·)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온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ελάληκα ὑμῖν πνεῦμά ἐστιν καὶ ζωὴ ἐστίν·)
- (64절) 그러나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이 있다 (ἀλλ' εἰσὶν ἐξ ὑμῶν τινες οἱ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ἐξ ἀρχῆς ὁ Ἰησοῦς)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τίνας εἰσὶν οἱ μὴ πιστεύοντες)  
 그리고 자신을 [배반 할] 넘겨 줄 자가 누구인지를 (καὶ τίς ἐστὶν ὁ παραδώσων αὐτόν.)
- (65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ἔλεγεν·)  
 이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ρηκα ὑμῖν)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ὅτι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πρὸς με εἰ μὴ ἢ δεδομένον αὐτῷ ἐκ τοῦ πατρὸς.)
- (66절) 이일로 인해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그의 뒤로부터 [그를] 떠났습니다  
 (Ἐκ τούτου πολλοὶ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πῆλθον εἰς τὰ ὀπίσω)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걸지 않았습다 (καὶ οὐκέτι μετ' αὐτοῦ περιεπάτουν.)
- (6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열 둘에게 [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τοῖς δώδεκα·)  
 너희들은 떠날 뜻이 없느냐? (μὴ καὶ ὑμεῖς θέλετε ὑπάγειν·)
-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κύριε, πρὸς τίνα ἀπελευσόμεθα·)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ῥήματα ζωῆς αἰωνίου ἔχεις.)
- (69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왔고, 깨달아 왔습니다  
 (καὶ ἡμεῖς πεπιστεύκαμεν καὶ ἐγνώκαμεν ὅτι σὺ εἶ ὁ ἅγιος τοῦ θεοῦ.)
-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한 것이 아니냐?  
 (οὐκ ἐγὼ ὑμᾶς τοὺς δώδεκα ἐξελέξαμην·)  
 너희들 중 하나는 대적자이니라 (καὶ ἐξ ὑμῶν εἷς διάβολός ἐστιν.)
- (71절) 이는 가룟의 시몬, 유다를 일컬음이었습니다 (ἔλεγεν δὲ τὸν Ἰούδαν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왜냐하면 그가 그 [예수]를 곧 넘겨 줄 자입니다 (οὗτος γὰρ ἐμελλεν παραδιδόναι αὐτόν.)  
 [그는] 열 둘 중의 하나 [였습니다] (εἷς ἐκ τῶν δώδεκα.)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명의 빵’에 대한 논쟁을 뒤에서 지켜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60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말씀은 어렵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어렵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클레로스(σκληρός)’는 ‘난해하다’ 또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보다는 ‘너무 거칠고 역겹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지요. 좋은 말로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0 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을 원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 말씀은 너무 거칠고 역겨워서 도저히 들을 수 없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공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대개의 경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술 더 떠 예수님의 대화법 자체에 강한 불쾌감까지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투덜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나의 말]이 너희를 걸어 넘어 뜨리느냐?(τοῦτο ὑμῶς σκανδαλίξει;)”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 쉬운말로 차근차근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텐데 왜 하필 귀에 거슬리고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은 물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걸을 떠나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화법을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떠나가리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6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전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인자를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조건절에 의문 부호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만약 전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인자를 너희들이 본다면?”이 원문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이 눈 앞에서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한 말이 입증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 한다는 말이지요. 결국 그들 눈에 당장 표적을 보여 줄 수 없었기에 그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제자들 중 많은 이가 결국 그의 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63절을 읽으십시오. 63절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곧 살게하는 것이다 (성령=생명을 만드는 것). 한글 성경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조오포이오운 (ζωοποιῶν)’은 죽은 생명을 살린다는 뜻보다는 생명 자체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지요. 뒤이어 예수님은 “육신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육신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육신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살과 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6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해 온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자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해 온’으로 번역한 이유는 시제가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영이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영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그 말

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4-66절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 줄 자(가롯 유다)가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동일한 가르침만 되풀이 하실 뿐이었습니다. 6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보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의 유복한 삶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현세가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숭배에 불과한 것이지요.

6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설득되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어찌 보면 사람들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찢어 놓을 듯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빛과 진리되신 예수님이 또렷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저 달콤한 사랑의 언어로만 들리나요? 아니면 심장과 폐부와 골수를 찌르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들리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6:60~71)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나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 원문해석하기

- (60절) 그런데 그의 제자들 중 [이야기를] 들은 많은 수가 말했습니다  
(Πολλοὶ οὖν ἀκούσαντε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εἶπαν·  
그의 말씀은 어렵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을까?  
(σκληρὸς ἐστὶ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τίς δύναται αὐτοῦ ἀκούειν;)
- (61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이에 [그의 말에] 대하여 투덜댄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아셨을 때  
(εἰδὼς δὲ ὁ Ἰησοῦς ἐν ἑαυτῷ ὅτι γογγύουσιν περὶ τούτου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것[나의 말]이 너희를 걸어 넘어 뜨리느냐? (τοῦτο ὑμᾶς σκανδαλίζει)
- (62절) 그런데 만약 전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인자를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ἐὰν οὖν θεωρήτ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ἀναβαίνοντα ὅπου ἦν τὸ πρότερον;)
- (63절) 성령이 살게 하는 것[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τὸ πνεῦμά ἐστιν τὸ ζῶοποιῶν·)  
육신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ἡ σὰρξ οὐκ ὠφελεῖ οὐδέν·)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온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ελάληκα ὑμῖν πνεῦμά ἐστιν καὶ ζωὴ ἐστίν·)
- (64절) 그러나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이 있다 (ἀλλ' εἰσὶν ἐξ ὑμῶν τινες οἱ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입니다 (ἦδει γὰρ ἐξ ἀρχῆς ὁ Ἰησοῦς)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τίνας εἰσὶν οἱ μὴ πιστεύοντες)  
 그리고 자신을 [배반 할] 넘겨 줄 자가 누구인지를 (καὶ τίς ἐστὶν ὁ παραδώσων αὐτόν.)
- (65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ἔλεγεν·)  
 이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διὰ τοῦτο εἶρηκα ὑμῖν)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ὅτι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εἰσεῖν πρὸς με ἐὰν μὴ ἢ δεδομένον αὐτῷ ἐκ τοῦ πατρὸς.)
- (66절) 이 일로 인해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그의 뒤로부터 [그를] 떠났습니다  
 (Ἐκ τούτου πολλοὶ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πῆλθον εἰς τὰ ὀπίσω)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걸지 않았습다 (καὶ οὐκέτι μετ' αὐτοῦ περιεπάτουν.)
- (6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열둘에게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τοῖς δώδεκα·)  
 너희들은 떠날 뜻이 없느냐? (μὴ καὶ ὑμεῖς θέλετε ὑπάγειν·)
-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κύριε, πρὸς τίνα ἀπελευσόμεθα·)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ῥήματα ζωῆς αἰωνίου ἔχεις·)
- (69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왔고, 깨달아 왔습니다  
 (καὶ ἡμεῖς πεπιστεύκαμεν καὶ ἐγνώκαμεν ὅτι σὺ εἶ ὁ ἅγιος τοῦ θεοῦ.)
-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한 것이 아니냐?  
 (οὐκ ἐγὼ ὑμᾶς τοὺς δώδεκα ἐξελεξάμην·)  
 너희들 중 하나는 대적자이니라 (καὶ ἐξ ὑμῶν εἷς διάβολός ἐστιν.)
- (71절) 이는 가롯의 시몬, 유다를 일컬음이었습니다 (ἔλεγεν δὲ τὸν Ἰούδαν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왜냐하면 그가 그 [예수]를 곧 넘겨 줄 자입니다 (οὗτος γὰρ ἔμελλεν παραδιδόναι αὐτόν.)  
 [그는] 열 둘 중의 하나 [였습니다] (εἷς ἐκ τῶν δώδεκα.)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 주셨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기적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침으로 그들이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효과만 불러 왔습니다. 그들은 싸우듯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도저히 들어 줄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비단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미련없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있던 제자들은 하나 둘 그에게서 멀어졌고 다시는 그와 함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리어 예수님의 공동체에 화를 불러 온 셈이 되었지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두 제자입니다.



6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남아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떠날 뜻이 없느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너희들은 그럴 뜻이 없느냐? 너희들 안에는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 들었고, 그 말씀이 제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8-69 절을 읽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 왔고 깨달아 왔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공관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상응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한 개인의 고백이라기 보다는 열두 제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 열 둘을 택했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명은 대적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자’는 한글 성경에는 ‘마귀’로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원어는 ‘디아블로스’ (διάβολός) 로 ‘비난자,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악마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단지 가롯 유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데 동참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디아블로스’를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라고 한정하는 것은 디아블로스가 지니는 실제 의미를 너무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71 절을 읽으십시오. 디아블로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원래 가롯(Ισκαριώθ)은 유다의 출신 지역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역할과 섬뜩하리만큼 매우 흡사합니다. 가롯은 ‘살인한 사람’, ‘그가 고용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실제로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되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자살을 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여기서 또 다시 드는 의문이 두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 끝내는 자신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에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를 더 이상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자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개인적인 믿음 때문일까요? 사탄에 의해 조종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서 그런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 간 것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롯 유다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는 결코 알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구속사에서 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 정한 그의 역할대로 살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